

# 모험·발견·논쟁 ...자연사박물관 안팎의 이야기

## 큐레이터

랜스 그란데 지음·김새남 옮김

자연의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 있다. 자연사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이 그들이다. 대부분 큐레이터라 하면 미술관 전시물의 수집이나 기획, 홍보 등을 맡고 있는 이들을 생각한다.

미술관 외에도 박물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도 큐레이터들이다. 여기서 박물관은 대체로 풍속과 생활사와 관련돼 있다.

그러나 좀 더 시야를 확장해보자. 자연의 역사와 관련된 분야도 박물관이 있다. 바로 자연사박물관이 그것이다.

자연사박물관은 자연과 인류 문화사를 토대로 다양한 과학 지식을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곳이다. 단순한 소장품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기능적 의미뿐 아니라 발견과 연구, 탐구가 이뤄지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이다.

자연사박물관 안팎의 이야기를 담은 대중 과학서가 출간됐다. 시카고 필드 자연사박물관 석좌 큐레이터인 랜스 그란데가 펴낸 '큐레이터'는 이색적인 모험과 발견, 논쟁을 이끄는 자연사박물관 과학자들의 이야기다.

저자가 몸담고 있는 필드 자연사박물관은 워싱턴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뉴욕의 미국자연사박물관과 함께 미국 3대 자연사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저자는 이곳에서 30년간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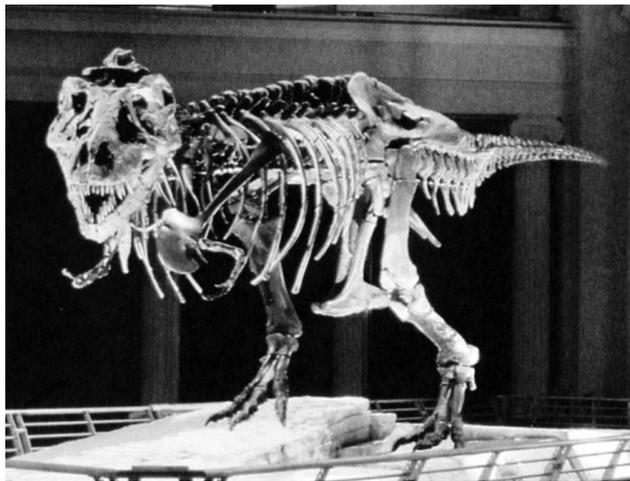
생물학자이자 어류 화석 큐레이터다. 범박하게 말한다

면 자연사박물관은 곧 큐레이터의 역사다. 큐레이터들이 발견하고 복원한 수많은 화석과 표본이 없다면 박물관은 존립할 수 없다. 이들의 손을 통해 동식물과 광물, 인류의 과거와 현재가 재현된다.

구체적으로 큐레이터들이 다루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 생물 다양성, 문화사, 인간 존재의 핵심적 문제 등을 다룬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장 연구는 물론 '생명'과 '문화'의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소장품을 구축한다.

책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내용은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실제 모델인 공룡 티렉스 '수'가 필드 박물관뿐 아니라 시카고 대 표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이다. 저자는 '수'의 소유권 분쟁에서 증인으로 불려 다니기도 했으며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힌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화석 사업체인 블랙힐스와 연방 정부의 분쟁, 소더미 경매에서 760만 달러에 낙찰, 밀레니엄 행사를 위한 2년에 걸친 3만 시간의 복원 프로젝트까지 지난하다. 그뿐 아니라 '수' 이름에 대한 권리 분쟁까지 겹쳐 있었다. 마침내 2000년 '수'가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당일 하루에만 1만 명이 박물관을 찾았으며 이후 2500만 명이 관람을 한다.



미국 필드 자연사박물관 중앙 홀에 설치돼 있는 몸 길이 13m인 공룡 '수'의 뼈대. 이 표본을 둘러싸고 감정적·정치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소소의책 제공>

저자가 소속돼 있는 필드 박물관에는 1만 5000년 된 인간 해골 화석부터 20세기 사형수 뼈에 이르기까지 6000구가 넘는 인간 유골이 소장돼 있다. 멀게는 이집트의 미라, 3000년 넘는 인디언 해골, 나아가 5만년 된 네안데르탈인 뺏조각까지 포함돼 있다.

이밖에 저자는 현장에서 겪은 체험이나 동료 큐레이터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40년간 화석 발굴 작업을 해온 와이오밍 주의 고산 사막지대에서의 일, 멕시코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독자에 몰려 죽어가면서도 독이 인간

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록한 양서파충류 큐레이터 이야기는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다.

한편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본문 못지않게 장별로 정리한 주석(미주)에 있다. 소중하고 흥미로운 정보들이 수록돼 있어 가치가 작지 않다. 진화생물학을 둘러싼 논쟁, 과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 큐레이터의 연구 조사 등 평소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는 분야도 담겨 있다.

<소소의책·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탐서주의자, 그림 속의 책을 탐하다

## 혼자 남은 밤, 당신 결의 책

표정훈 지음

출판평론가이자 번역가로 활동중인 표정훈의 '탐서주의자의 책'을 접했을 때 무엇보다 '탐서주의자'라는 타이틀이 근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표 작가의 신작 '혼자 남은 밤, 당신 결의 책'은 '탐서주의자'라는 호칭에 걸맞게 만만찮은 독서량을 자랑하는 그의 내공이 유감없이 발휘된 책이다.

최근 미술 관련 서적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림'을 소재로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미술사를 개략하거나, 유명 작가를 다루고, 그림에 등장하는 '음식', '의상' 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등 미시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표 작가의 이번 신간은 그림에 등장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책과 책 읽는 인물 등에 대한 저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표 작가의 책은 독특한 발상에서 출발해 더 많은 '책 읽기' 독자를 끌어들이는 점에서 색다르다.

출발은 '그림 속 저 책은 무슨 책일까?'라는 궁금증이다. 화가 앞에 모델로 선 인물이 선택한 '한 권의 책'은 분명 의미있는 책일 테고, 저자는 그 책과 관련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 38점의 그림 속 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상상력의 재료는 2만여권의 장서와 방대한 독서다. 그는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책·독서·출판문화와 시

대의 흐름, 예술 동향, 사회상 등을 추정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간다.

표지화로 쓰이기도 한 첫번째 책 '고독은 부드럽다'에 등장하는 작품은 에드워드 호퍼의 '239호 열차 C칸' (1938)이다. 녹색 주조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속 열차에 홀로 앉은 여성은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다.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그녀를 1937년 호퍼가 머물던 농장 옆에 살던 '여인'이라 상상하고 한편의 단편소설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은 잡지 '스크라이브너 매거진'에 실린 피츠 제럴드의 '밤은 부드럽리워라'라 가정하고 피츠 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평판 등 이야기의 폭을 확장시킨다.

낯선 작가 윌리엄 맥그리거 맥스톤의 작품 '하녀' (1910)도 풀어내는 이야기로 흥

미롭다. 그림 속 등장인물은 책을 읽고 있는 하녀다. 산업혁명 후 급격히 늘어난 하녀는 책을 읽을만한 위치가 아니다. 옆구리에 먼지떨이를 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청소를 하던 중 주인이 읽던 책을 발견하고 잠시 책에 빠져든 듯하다.

저자는 그림 속 책상에 놓인 백자, 기모노 인형 등을 감안할 때 하녀의 주인이 동양에 관심이 많을 거라 여기고 그녀가 읽는 책을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퍼시벌 로웰의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닐까 상상한다. 또 1900년에 발표된 윌리엄 미르브의 소설 '어느 하녀의 일기'에서 그녀의 육성을 빌려오고, 비숍 여사를 다룬 김수영의 시 '위대한 뿌리'도 함께 소개한다.

책을 읽다보면 르네 마그리트, 빈센트 반 고흐, 벨라스케스, 쿠르베 등의 작품과 그 속에 등장하는 '책'에서 출발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독서의 여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한겨레출판·1만5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사=16세기 중반 이후, '대항해시대'에 유럽 세력이 동아시아로 진출하게 된 배경과 당시 동아시아 3국의 변영·쇠퇴의 원인을 분석해 '타자의 역사'의 가치를 담았다. 직업 외교관 출신의 지은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유럽 간 교류 과정을 다채로운 역사적 사건과 세계사적 맥락으로 파헤치며 한국 사회가 고립되고 폐쇄적인 역사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근거를 밝혀낸다. <뿌리와이파리·1만8000원>

▲전쟁 국가의 탄생=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워싱턴 포스트 선정 주목한 말한 논픽션 등의 영예를 휩쓴 이 책은 베트남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미국이 끝없는 전쟁 속에서 표류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MSNBC에서 에미상 수상작 '레이첼 매도 쇼'를 진행하는 정치 평론가 레이첼 매도의 재치와 지성으로 미국이 지금의 위험천만한 장소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경쾌하게 풀어낸다. <갈라파고스·1만8000원>

▲한 권으로 읽는 자치통감=세종대왕이 필독서로 삼고 시진핑이 사회 지도층의 교과서로 읽은 중국 최고의 역사서, '자치통감'에 수록된 가장 중요한 58편의 이야기를 한 권에 모았다. 저자 사마광은 주관적 해석을 배제한 냉철한 정치가의 시선으로 '초한지'의 항우와 유방부터 천하 통일을 이룬 당 태종 이세민까지 수많은 사료를 비교해 1362년간의 역사 변천과 흥망성쇠를 명쾌하게 정리한 역사서다. <현대지성·1만9800원>

▲글로벌/로컬=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문화 간 접촉이 빈발하는 지구화 시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로컬 문화와 글로벌 문화가 부딪히고 뒤섞이는 오늘날의 글로벌/로컬간 모순과 갈등을 다룬 책이다. 데이비드 폴먼 뉴욕대학교 영화학 교수, 라오빙후이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한 16명의 전문가들의 탐구를 톨 윌슨 캘리포니아대학교 문학부 교수와 위발 디샤냐야케 하와이대학교남아시아연구센터 교수가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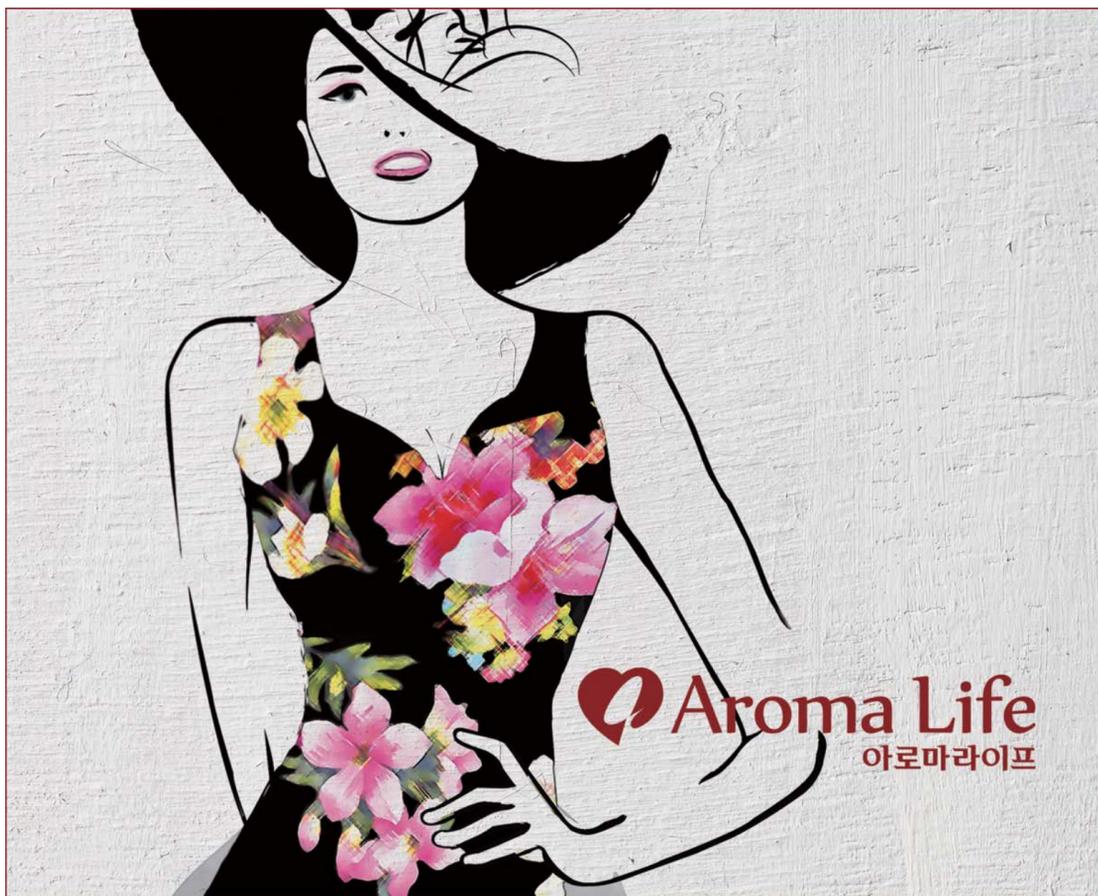
사서다. <에코리브르·3만8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시골 쥐의 서울 구경=시골 쥐는 꿈꾸던 서울 구경을 나섰다. 힘들게 올라온 서울은 과연 거대하고 신기했지만, 복잡한 풍경에 정신이 없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골쥐에게 서울쥐가 찾아와 서울 안내를 시작한다. 어린이의 영원한 벗, 방정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이 책은 100여년 전 서울을 섬세한 그림으로 담고 방정환연구소장 장정희 박사의 재밌고 깊이 있는 해설이 담겼다. <길벗어린이·1만3000원>

▲커다란 순무=햇간을 청소하던 할아버지는 순무씨 한 알을 발견한다. 순무씨를 심고 매일같이 정성으로 돌봐주자 순무는 하루하루 쑥쑥 자라났다. 가족들과 나눠 먹을 생각으로 훑어보려 하자 순무는 꾀꾀도 하지 않고, 할머니, 명명이, 아옹이까지 힘을 합쳐 힘차게 당긴다. 2006년 동기 '김꽃'으로 황금펜 아동문학상을 받은 김영미 작가가 글을 쓰고 박정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을 그렸다. <하루룩·1만1800원>

▲아빠 거위=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오즈의 마법사'의 작가 프랭크 바움 100주기를 기념해 1899년 당시 17만부 이상 팔려나간 명작 동시집을 국내 최초로 출간한다. 200여년 동안 전해져 오던 전래동요 '엄마 거위'에서 영감을 얻은 이 책은 특유의 귀엽고 예쁜 동시에 화가 덴슬로우의 세련되고 유머러스한 그림을 합쳤다. 가족과 함께 영어 공부하듯 읽을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도 함께 명기했다. <문학세계사·1만3500원>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칙외산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